

1.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일까요?

- ① 주님의 기도                      ② 성모송
- ③ 식사 전 기도                      ④ 사도신경

2. 이어지는 구절에 맞게 연결 해 보세요.

- 청하여라 •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찾아라 •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 원하는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 두드려라 • 너희가 얻을 것이다.

3. 순서에 맞게 기도해봅시다.

- 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 ②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③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④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 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⑥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 ⑦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 ⑧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 ⑨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 ⑩ 땅에서도 이루어 지소서!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께 드리는 청원기도의 내용이 담겨있어요. 우리친구들 '청원 기도'라고 들어봤나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믿으며 그분께 맡겨 드리는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친구들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나!! 나 자신의 뜻,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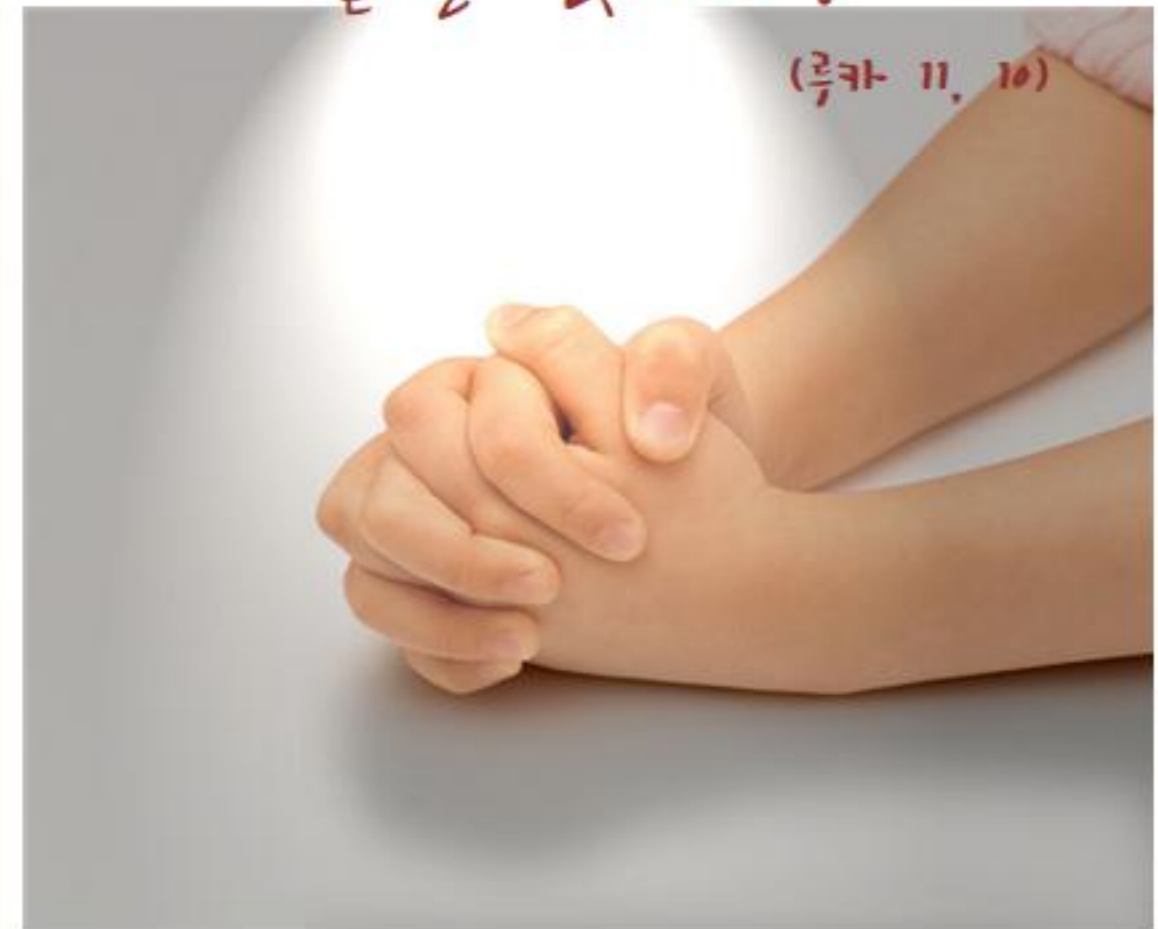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하고 말씀해주세요. 우리친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끊임없이 청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도록 노력하고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있는 멋진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기로 해요!

연중 제 17주일

“누가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눅카 11, 10)



성광

학년

이름

시작명

1독서 **여행**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8,20-32

그 무렵 <sup>20</sup>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sup>21</sup>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sup>22</sup>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sup>23</sup>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sup>24</sup>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신 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신 명 때문이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sup>25</sup>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 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sup>26</sup>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신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sup>27</sup>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sup>28</sup> 혹시 의인 신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마흔다섯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sup>29</sup> 아브라함이 또 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마흔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마흔 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sup>30</sup>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sup>31</sup>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스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스무 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sup>32</sup>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2독서 **여행**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2,12-14

형제 여러분, <sup>12</sup>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sup>13</sup>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sup>14</sup>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여행**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13

<sup>1</sup>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2</sup>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sup>3</sup>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sup>4</sup>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sup>5</sup>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벼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벼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sup>6</sup> 내 벼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sup>7</sup>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sup>8</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졸곤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sup>9</sup>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sup>10</sup>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sup>11</sup>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sup>12</sup>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sup>13</sup>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마리아수녀의  
주일 복음 그림  
- 바오로딸쿤텐츠

